

DJ와 가시밭길 민주화 '동행'...이희호 파란만장했던 삶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11시37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수혈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고(故)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이희호 남편'이라 칭할 만큼 둘의 관계는 부부라기보다 '동지' '동업자'에 가까웠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망명하던 시절인 1983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기도 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고,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희호는 1922년 서울에서 6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유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교육열에 힘입어 이희호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1936년 진학했다.

졸업 후 이화여전(이화여자대학교)을 다니던 이희호는 2년 다닌 뒤 강제졸업을 당했다. 후에 이화여대에 편입을 요청했지만 실패하고 1946년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재학 당시 이희호의 별명은 특이한 중성 관사인 '다스(das)'였다고 한다. 행동이 여성 같지 않고 중성적이었다는 의미였다.

당시 이희호는 기독교청년회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각 대학의 학생 리더들이 만든 '변화동지회'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운동에 발을 들였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피난을 갔던 이희호는 이곳에서 대한여자청년단을 만들었다. 이희호는 이 무렵부터 여성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1952년에는 대한여자청년단에 이어 여성문제연구소도 창립했다.

서울대생 모임이었던 변화동지회 역시 1951년 부산에서 다시 회동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이 모임에서 이희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

195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1958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희호는 모교였던 이화여대에 동지를 들고 기독교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학 원서 강독을 했다. 대학교수를 희망했던 이희호는 YWCA(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측으로부터 총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YWCA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며 사회운동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김대중을 다시 만난 건 1961년이었다. 김대중은 당시 첫 부인이던 차용애를 먼저 떠나보낸 상태였다.

5·16 쿠데타로 의원직을 잃은 '정치 실업자' 김대중과 YWCA 총무였던 이희호는 주로 정치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졌다. 두 사람 사이에 '동지애'가 싹텄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1962년 결혼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재혼인 데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생명을 잃었기에 주변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정치 낭인이었던 김대중의 앞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했다. 결

혼식을 마치고 열흘 뒤 김대중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갈 정도였다. 평생 김대중의 정치적 동반자로 산 이희호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정치인 김대중의 뒷바라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희호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은 접게 된다. 이희호가 기억하는 가장 고된 선거는 1967년 총선이었다. 주위에서는 지방 지역구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 쉽다며 김대중의 목포 출마를 만류했다. 하지만 결국 김대중은 목포 출마를 결심했다. 이희호도 나서 지원했다.

1970년 김대중은 처음으로 대선에 나갈 결심을 했다. 40대 기수로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인기는 날이 갈수록 올라갔다. 부산 연설에는 50만 명의 시민이 몰렸다. 김대중이 하루에 열 차례가 넘는 연설을 하면 이희호 역시 전국의 장터와 거리를 돌며 남편을 도왔다. 이희호는 찬조연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제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4월18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김대중의 유세에는 100만 인파가 모였었다. 하지만 결국 제7대 대선은 박정희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대중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다.

미국 유학까지 한 촉망받던 '여성회운동가' 1962년 DJ와 결혼...평생의 정치적 동반자 DJ 수난 때마다 항상 걸 지키며 버팀목 역할 DJ에 "고난의 생 견딘 당신 사랑하고 존경" 여성 사회 참여 발전 이끌어...방북 활동도

1972년 유신 쿠데타가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됐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일본 도쿄에 머물던 김대중은 10월 유신 소식을 듣고 귀국을 포기한 뒤 해외 망명을 결정했다. 이희호는 남편에게 편지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국내 민심을 전했다. 엄혹한 상황에서도 남편의 투쟁 의지를 북돋웠다. 그는 편지에 "현재로서는 당신만이 한국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니 더 강한 투쟁을 하십시오"고 적었다.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사건까지 벌어졌다. 김대중은 일본 도쿄에서 피한 5명에게 납치당해 배로 끌려가 바다에 떨어져 죽을 뻔한 위험을 겪는다. 다행히 미국 정부에 배의 위치가 탐로나 김대중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이희호는 매일 가슴을 졸이는 날들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고초 속에서도 남편에게 포기를 권하지 않았다. 이 시절 이희호를 붙든 건 간절한 신앙심이었다.

1979년 박정희가 암살돼 기나긴 군부독재 시절이 저물었지만 신군부의 등장으로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신군부가 김대중이 민주화운동가 20여명과

복합의 사주를 받고 내란을 획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대중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장남 김홍일까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이희호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이들의 한복 수의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김대중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졌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까지 나서 서한을 보냈다. 결국 1981년 김대중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대중의 부속생활 동안 이희호는 일기를 쓰듯 김대중에 편지를 보냈다. 1982년 12월 출감 때까지 그가 보낸 편지만 649통에 달했다.

이희호가 할 수 있는 일은 헌신적인 육바라지였다. 힘없이 독서를 하는 김대중을 위해 각종 책을 사서 봉투 감옥으로 보냈다. 김대중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2년6개월 동안 이희호가 김대중에 보낸 책만 600권에 달했다.

1982년 김대중은 다시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탄원서를 쓰고 2년간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이희호도 따라나선다.

하지만 1984년 귀국한 김대중은 결국 다시 정치에 뛰어들게 된다. 12대 총선에서 김대중의 귀국으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제1야당이 됐다. 이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아

과와 함께 활동을 지속했다. 2008년에는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김대중은 이때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1월 이희호는 자서전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를 펴냈다. 제목을 지어준 이는 김대중이었다. 그해 11월11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은 이희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인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노무현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대중의 병세는 급격히 안 좋아졌다. 김대중 집례는 이희호 뜻대로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사당에 빈소가 차려졌다.

입관 전날 이희호는 김대중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 용서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는 남의 뜨거운 사랑의 품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는남께서 당신을

과와 함께 활동을 지속했다. 2008년에는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김대중은 이때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1월 이희호는 자서전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를 펴냈다. 제목을 지어준 이는 김대중이었다. 그해 11월11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은 이희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인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노무현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대중의 병세는 급격히 안 좋아졌다. 김대중 집례는 이희호 뜻대로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사당에 빈소가 차려졌다.

입관 전날 이희호는 김대중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 용서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는 남의 뜨거운 사랑의 품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는남께서 당신을

과와 함께 활동을 지속했다. 2008년에는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김대중은 이때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햇볕정책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1월 이희호는 자서전 '동행-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를 펴냈다. 제목을 지어준 이는 김대중이었다. 그해 11월11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김대중은 이희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인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2009년 노무현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대중의 병세는 급격히 안 좋아졌다. 김대중 집례는 이희호 뜻대로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사당에 빈소가 차려졌다.

입관 전날 이희호는 김대중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 용서하며 아껴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는 남의 뜨거운 사랑의 품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는남께서 당신을

DJ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의 발자취

1922년 9월21일	조선 경기도 경성부 수송정 출생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940년 3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1944년 3월	이화여자전문학교 여자청년학생회 지도원 양성회 졸업 (당초 문과 입학 후 교육이성조리로 전과)
1944~1945년	충남 삼포 공립 국민학교 부설 여자 청년 연성소 지도원
1950년 5월	서울대 사범대 교육과 학사 졸업
1952년11월~1953년	여성문제연구원 발기인사
1954년9월~1956년5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수학
1958년 5월	미국 스카티 대학 사회학 석사학위
1958-1963-1965년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
1959~1962년	대한 YWCA 연합회 총무
1961~1970년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이사
1964~1970년	사단 법인 여성 문제 연구회장
1964~1982년	대한 YWCA 연합회 상임위원
1968~1972년	범 태평양 동남아시아 여성연합회 한국지회 부회장
1993~1998년	터벨어 선교회 이사장
1994~1997년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이사
1998년 2월25일 ~2003년 2월24일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1998~2002년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명예 총재
1999~2002년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명예회장
1999~2002년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명예이사장
1999~2002년	대한연합회 명예회장
1999~2002년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
2000년 6월12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광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2000~2002년	(재)한국여성재단 명예이사장
2001~2002년	세종문화회관후원회 명예총재
2001~2002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명예이사장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 임시의장 및 기조연설
2003년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고문
2005년~	외환은행 나눔의 재단 이사
2007년 8월12~14일	금강산 관광 위해 방북
2007~2009년 9월	김대중평화센터 고문
2009년 8월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
2009년 9월10일~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2011년 12월26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조문 위해 육로로 방북
2015년 8월5일	방북
2018년 12월26일	건강 문제로 김대중 평화센터 신년 하례식 취소
2019년 3월	건강 악화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입원
4월21일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 사망
6월10일	이희호 여사 별세. 향년 97세.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